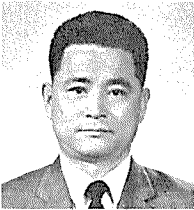


## 인구전환(人口轉換)과 수명의 연장



최 인 현

### 1. 적절한 인구증가

인구 문제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는 매년 3%에 가까운 인구 증가율이 지속되어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게 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통적인 자녀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의 한 수단으로 국가 권력에 의하여 인구조절정책을 실시하여 지난 30년간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어 최근의 인구증가율은 1%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증가의 둔화 현상을 전문가들은 인구전환(人口轉換)이 성숙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천년이 소요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30년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요즘 국제사회에서 자랑거리가 되으며, 인구 조절에 성공한 나라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평균 6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최근에는 2명 수준까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명의 자녀는 아들과 딸을 한명씩 두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음 세대에도 한명의 딸과 아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교차를 인구성장이 안정되고 정지상태가 유지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인구전환에 관한 지수를 나라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지역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100%의 인구전환을 완료하였으며, 100%가 지나게 되면 그 나라 인구는 장기적으로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표1) 인구전환지수의 비교

아시아·태평양지역			유럽 지역	
한 국	0.95	덴 마 크	1.02	
일 본	1.00	노 르 웨 이	0.95	
홍 콩	0.98	스 웨 덴	1.03	
싱 가 폴	0.95	영 국	0.99	
중 국	0.73	프 랑 스	0.97	
태 국	0.57	독 일	1.01	
말레이시아	0.60	스 위 스	0.96	
아프리카 지역			남미 지역	
나이지리아	0.26	브 라 질	0.68	
이집트	0.48	멕 시 코	0.66	
아디오피아	0.16	아르헨티나	0.87	

자료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개발과 인구전환

아세아지역에서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이 95%의 인구전환을 이룩하였으며,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지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증가의 양적조절은 성공하더라도 질적향상은 다음 과제의 인구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 2. 수명의 연장과 가족주기(家族週期)

'다산다사(多産多死)시대에서 소산소사(小産小死)시대로 옮겨가는 현상을 인구전환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인구변동의 과정은 높았던 사망율이 낮아지고, 높았던 출생율이 낮아짐으로써 인구의 자연 증가율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증가의 양적 조절은 성공했다 하더라도, 질적 향상에 의한 조절은 새로운 인구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출생자녀 1천명중 100명이 1년이내에 죽었으나 요즘은 불과 10명 정도로 추산되며, 일본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5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의학의 발달, 자녀의 터울조절, 모자보건의 향상은 영아 사망율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게 하였으며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세 이상으로 연장시켰다. (일본 '89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평균 수명은 1989년 71세에 달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향이 일본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이 평균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과 출생 자녀수의 감소는 세대가 교차되는 한쌍의 가족 주기를 훨씬 길게하고, 그들의 생활패턴을 달라지게 한다.

표2에서 보는 바와같이 1920년대에 태어

난 세대들은 6명의 자녀를 양육시키고 3년의 여생을 보내지만, 2천년에 장년이 되는 194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평균 16년 이상의 노인생활을 즐기게 된다.

수명의 연장과 가족주기의 변화에 따라 노인문제가 새로운 인구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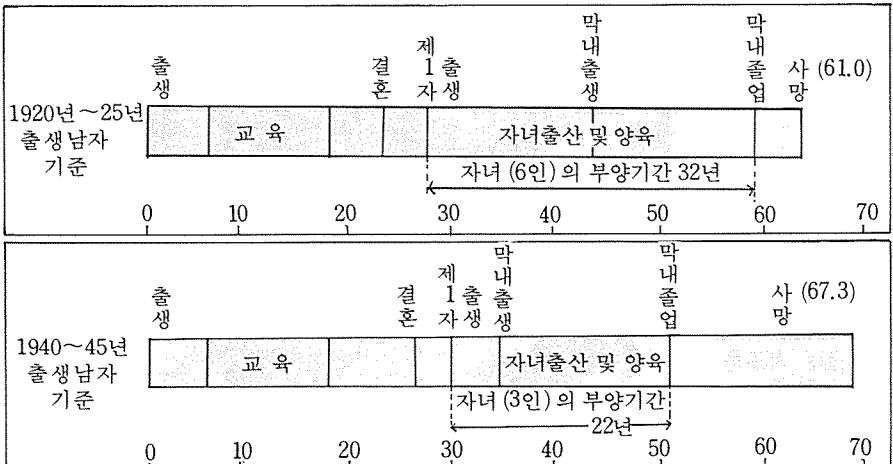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인구문제는 지속적이며, 한 가지의 결과에서 다음으로 옮겨지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구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창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3. 결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2천년에는 4

(표2) 세대별 가족주기의 비교



자료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국가적 차원에서  
본 부양부담의  
여건은 각 개인  
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천 6백 5십만, 2천 10년에는 4천 9백만, 그리고 2천 20년에는 5천만까지 성장하여 2천 50년에는 4천 7백만으로 서서히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장래에 대한 예측은 여러가지의 의미와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나 인구의 변동은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수치적으로 산출되는 인구의 규모는 사전에 이루어지는 가정에 따라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크게 빗나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전망의 결과에서 도출되는 인구부양비(比)는 1980년대의 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53명을 부양해야 하는 수준에서 1990년대에는 40명 수준으로 부담이 줄게 되며, 이러한 경향은 2천 20년경까지 지속되므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계속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국가적차원에서 본 부양 부담의 좋은 여건은 각자의 개인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자녀양육 부담의 둔화는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며, 국가 또는 개인차원에서 균형있는 사회의 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의 성인 사망율은 선진국의 경향에 비하여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점차적으로 안정되어가는 양적 인구문제가 해결되고, 질적인 인구정책이 개발됨으로써, 특히 흡연, 음주,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성인사망이 머지 않은 앞날에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자=보사연구원 연구실장〉